

MLB 경기시간 31분 줄고 타율·도루는 늘고



▲ MLB 관계자가 커진 18인치 베이스아래에 기존 15인치 베이스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이저리그(MLB)가 새 규정을 통해 경기 속도를 높이고 더 활발한 야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AP통신은 전날 피치 클록, 수비 시프트 금지, 베이스 크기 확대 등 올 시즌 도입한 MLB 규정이 시즌 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9이닝 경기당 평균 소요 시간은 31분 감소했다. 지난해 시즌 초 11일 동안 평균 3시간9분이었는데, 올 시즌은 2시간 38분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시즌 경기 전체 평균 소요 시간인 3시간4분과 비교해도 26분 단축됐다.

MLB 전체 타율은 0.249로 지난해 대비 지난 시즌과 비교해 0.016 올랐다. 지

난해 시즌 초 타율과 비교해 우타자는 0.236에서 0.253으로, 좌타자는 0.228에서 0.245로 상승했다.

피치 클록은 경기당 평균 0.89건이었는데 투수가 가장 많이 위반했다. 올해 열린 141경기에서 수집된 125개 위반 사례에서 투수가 85건(68%)이었다. 이어 타자 32건(25.6%), 포수 4건(3.2%) 순이었다.

경기당 도루는 30% 증가했다. 도루는 경기당 평균 1.3개로 분석됐다. 지난해 경기당 평균은 1.0개였다. 도루 성공률은 74%에서 79.6%로 5.6%포인트 증가했다.

MLB는 올 시즌부터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을 도입했다. 피치 클록은 주자가 있으면 20초, 없으면 15초가 적용된다. 제한 시간 안에 투구 준비 동작을 끝내지 못하면 볼로 카운트된다. 또 투수가 견제구는 주자당 2회까지 던질 수 있도록 제한했고, 1-3루 베이스가 15인치 정사각형에서 18인치 정사각형으로 커졌다.

아울러 상대 타자의 데이터, 성향 등을 분석해 야수의 위치를 옮기는 수비 시프트에 제한이 생겼다. 투수, 포수를 제외한 내야수는 내야 홈 부분을 벗어날 수 없고 2루를 기준으로 양쪽에 2명씩 서 있어야 한다. 수비팀은 내야에 최소 4명의 선수를 뒀야 한다.

호주 "여자 월드컵에서 표현의 자유 지지"



▲ 2022 카타르 월드컵 대 이란전에서 경기에 앞서 잉글랜드 대표팀이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뉴질랜드와 공동 개최하는 호주가 선수들이 자유롭게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을 시끄럽게 했던 '무지개 완장' 착용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주축구협회의 제임스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만 훌륭한 경기력을 뽐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선수들이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도록 대회 규정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현재 FIFA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존슨 CEO는 FIFA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사회, 정치적 이슈를 선수들이 언급할 수 있을 것이며 성소수자 문제를 예로 들었다.

성소수자 문제는 지난해 11월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단적인 예가 무지개색으로 채워진 하트에 숫자 '1'이 적힌 원 러브(One Love) 완장 사태다. 대회 개막 전 잉글랜드·독일·네덜란드·벨기에·웨일스·스위스·덴마크 등 유럽 팀 주장들은 이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 완장 캠페인이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뜻에서 시작한 만

큼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개최국 카타르에 항의하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자 FIFA는 "완장을 찬 선수에게 옐로카드를 줄 것이며, 더 강력한 징계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고 유럽 팀들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러자 정치적 구호라도 인권 등과 관련된 보편적 주제라면 문제 삼지 않았던 FIFA가 '이중잣대'를 보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슬람 율법을 강제하며 성소수자를 용인하지 않는 개최지 중동의 입김 때문에 해당 결정이 나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카타르와 FIFA에 포용 정신을 되새기게 하겠다고 독일 대표팀은 '입 가리기', 잉글랜드 대표팀은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존슨 CEO는 "우리 여자 대표팀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지지한다. 그렇게 하도록 선수들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관리,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재테크 위에 稅 테크

(세금 세)

26년간 LA Wilshire 한곳에서 OC Fullerton 으로 이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세금보고 및 회계업무
개인/ 주식회사/ 비영리 법인
각종 세금 관련 업무

▪ 회계 감사
IRS/ CDTFA/ EDD 세무감사 대행
주식회계/ 회계감사

▪ 투자 및 재정계획
뮤추얼펀드/ IRA/ 은퇴연금 상담
Personal Financial Planning

▪ 법인 설립 및 자문
주식회사 설립
한국 지상사 회계감사 및 자문

첫번째
사업체 상담
30분 무료



*오정훈 공인회계사 사무실은 필요이상의 수입료 책정 등의 과잉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Tel: 714.770.0041 213.382.6062
Fax: 714.868.7839 Email: jaycpa@sbcglobal.net
251 E. Imperial Hwy., Suite 411, Fullerton, CA 92835

오정훈 공인회계사 Jung Hoon Oh, CPA
• California State Univ. Rohnert Park, CA
BA, Accounting
• Arizona State Univ. Tempe, AZ
MBA Business Admin. and Accounting